

<교양 있는 엔지니어> 읽고 자기가 그려나갈 엔지니어의 모습에 대해

학과	기계공학부
학번	200721395
이름	한경수
학기	여름 계절

이번 계절학기 마지막 과제가 미래의 엔지니어모습을 그리는 글을 쓰라는 것인데, <교양 있는 엔지니어> 책을 읽기 전에 ‘미래의 어떤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내가 그리는 미래의 엔지니어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뼈대가 잡힌 느낌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다.

나는 먼저 현재 기계공학부 학생이지만, 지금 정보컴퓨터공학부로 전과지원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도 기계공학적인 엔지니어가 아니고 컴퓨터 과학 쪽에 종사하고 싶다. 사실 말하기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컴퓨터 공학보다 기공이 사회에서의 수요가 많고, 안정적이고, 일도 많이 힘들지 않다고 하는 말이 많다. 하지만 난 꽤 예전부터 컴퓨터 과학을 혼자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회사에서 수주도 받아서 일도 해보고 그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나 자신을 괴롭혔다. 그러다 끝내 내린 결론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는 것이었다. 안하고 후회할 바에 하고 후회하자는 말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대뇌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전과를 결심했다. 물론 이 선택은 나중에 가면 잘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실패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선택에 대해 다가올 미래에 처한 상황이 있다면, 그거조차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난 그 삶에 만족하여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번 계절학기 <공학윤리>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바뀐 생각이 있다. 나의 도덕적 가치관이 ‘무비판적 충성’이 ‘비판적 충성’으로 바뀐 것이다. 공학윤리 책에 구구절절 길게 설명이 잘 되어있지만 여기에 잠깐 그 내용을 쓰면, 고용주가 그 이익을 정의하는 대로 어떤 다른 고려사항보다 고용주의 이익을 위에 두는 것을 ‘무비판적 충성’이라고 한다. 피고용인의 개인적이고 전문적 윤리의 제한 내에서 가능한 만큼 고용주의 이익에 정당한 관심을 주는 것을 ‘비판적 충성’이라 한다. 졸업을 하거나 적정한 공학자로서의 역량이 갖추어지면 공공단체나 어떤 사회에서 일을 하게 될 지도 모르는데, 이 때 일을 하던 도중 상관의 부적절한 명령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음속에 잡혔다. 일단 상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이 공공의 막대한 피해를 야기 시킨다면 반대의견도 피력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환경파괴에 대해 무지하게 일이 진행될 경우 자신이 처신해야 될 지침 같은 것이 정해졌다. 처음에는 공학윤리 책을 사고 시험을 치고 그냥 책을 팔려고 했었는데, 이 공학윤리라는 과목은 앞으로 내가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져주는 책이라고 생각 든다.

<교양 있는 엔지니어> 라는 책은 공학자들에게 있어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하는 책임은 분명하다. 나 또한, 이 책을 읽고 공학자가 무작정 기존의 있는 과학만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정서적 만족감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최신의 공학기술을 배우면 10 년은 쓰고, 노하우는 20 년이 간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윤성근 교수님 말대로 ‘훈련된 바보’ 혹은 ‘산업폐기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마음의 비료, 즉 인문학을 소홀히 하여선 안 된다. 기술자는 정서적 풍부함보다 기술적

해박함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인문학을 소홀히(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시)하였다. 하지만 책 내용엔 이러한 내용이 있다. ‘분석과 실질적인 창조성은 정서적 충족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 역도 성립한다.’ 정서적 충족을 만족시키더라도 창조성과 공학자의 역량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엔지니어는 과학적 진리, 다시 말해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교양 있는 엔지니어> 책에는 말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과학적 진리를 토대로 공학자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 하겠고, 그렇다고 인문학도 무시하거나 등한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흔히 공대생들이 상식이 부족하고, 감수성, 인간중심의 사고 등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는 내가 봤을 때 인문학을 관심 있게 두지 않아서 그렇다. 인문학은 결코 공학에 있어서 들러리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공학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엔 공학도 사람을 위한 것임을 공학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공학윤리라는 과목을 학점을 받아 이수하게 될 테고 졸업을 하고 공학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생기는 공학적인 윤리, 즉 공학윤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공학윤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가상의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공학윤리 수업이 끝나고 세부적인 내용은 잊어버릴지라도 한가지는 가슴에 품고 공학자의 길을 걷겠다. 그 마음에 품을 한 단어는 ‘양심적임 conscientiousness’. 양심을 품고 공학을 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이 단어를 맹신하여, 일로써 대중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는 ‘나쁜 엔지니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공학윤리이지만 공학윤리는 전통적인 윤리와 같지는 않다. 기술적 작업에서 유능함은 ‘선량함’보다 더 믿을 만하다. 이로써 나의 공학자의 태도는 정해진다.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량함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자.”